

오늘의 기사관

4월)
행사
▲제 1회 셋·갯별 올림픽축제
개회식=오후 4시 신안군 증도
면 우전해수욕장. 6일까지. 전국마라톤대회(20.
095km)·전국바다낚시대회·비치서커·바다수영대
회·아쿠아슬론 대회와 갯벌·염전체험 및 섬 하이
킹 체험 행사.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신안해저유
물 사진전시회'·세계 전통 모험배 전시' '해양 문화
재 목관 인쇄 체험' 등 이동 박물관 운영.
▲제 119회 강진다산강좌=오후 3시 강진군 문
화회관. 안상수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가 '고
을, 멋지움'이라는 주제로 강연.
▲제 497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
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김병준 변호사가 '세상
의 쫓겨난 자들'이라는 주제로 강연.
▲제 1회 도시사배 전국 중·고 골프대회 폐막식

제 119회 강진다산강좌 오후 3시 강진군 문화회관

=오후 3시 무안 CC.
▲광주·전남경총 금요초연연수회=오전 7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연회장. 노길광(데이티싱
뉴스 대표)씨가 '성공기업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및 개발방안'에 대해 강연.
▲전국 초·중·고 교사를 위한 '경제와 문화체
합'=오전 9시 광주 신양파크호텔. 박경호(한외
사)씨가 한방의료에 대해 강연.
▲사랑을 나누면 행복이 보인다고 행사=오후
3시부터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대한적십자사와 한
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 소속 직원들이 '물보
이 안전수칙 홍보 활동' 및 물 '수돗물마시기' 캠페
인 전개.
▲제 22회 진도 예술아카데미 수료식=오전 11
시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소공연장. (5일)

▲담양 하루 나들이 버스투어=오전 9시30분부
터 담양 관광 희망자 45명을 대상으로 소쇄원·식
영장·변양정 등 정자문화 탐방.
공연
▲토요 민속여행=5일(토) 오
후 2시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대
공연장.
▲어린이 연극학교=5일까지 민들레 소극장.
▲최운형 개인전=9일까지
창갤러리. 미 에일대학원에서
현대미술 공부하고 있는 최운형
씨의 첫 개인전.
▲한국조폐공사와 함께하는 우리 돈 이야기=9
일까지 광주시립민속 박물관. 국내의 화폐 740점
전시.
▲세계의 희귀 화폐전=8일까지 광주 신세계 갤
러리. 화폐수집가 강대령씨의 소장품 300점 전시.



23. 한국의 두 번째 다목적 실용위성이 발사에 성공
했습니다.
이 위성은 지난달 28일 오후 4시 5분(한국 시간) 러
시아 플레세츠크 기지에서 러시아 발사체 '로코트'에 실
려 지구 상공 685km의 태양 동기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중국·일본·
프랑스·러시아·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7번째로 고해
상도(1m급) 인공위성을 가진 나라가 됐는데, 이 위성
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아리랑 2호 ②디스커버리호 ③아폴로 ④머큐리

참여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올려 보
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삼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
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검색절정 키워드

영화 '괴물'이 관객뿐만 아니라 인터넷까지 휩
쓸었다. 8월 첫째주 인터넷은 괴물에 대한 입소문
이 전파되면서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인터넷은 "2시간 가까운 상영 시간이 길게 느껴
지지 않았다. 재미있다", "괴물이 과대평가됐다"
는 등 다양한 괴물 감상평과 댓글이 잇따르고 있
으며, 극장가에는 연일 신기록이 쏟아지고 있다.
괴물은 정식 개봉일인 지난달 27일 45만명을 동
원한 뒤 31일 역대 개봉 영화 사상 최단기간인 닷
새만에 관객 300만명을 돌파했고, 개봉 7일 만에
서울관객 100만명을 넘어섰다.
괴물은 전국 620개 스크린을 차지하면서 인기
몰이를 하고 있으며, 괴물 출연자들인 송강호·배
두나 등에 대한 검색 횟수도 높았다.
집중호우가 끝나고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여
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가볼만한 휴가지를 비롯,
숙소·교통 정보와 여름 축제 이벤트 등에 대한 네
티즌들의 검색 빈도가 높았다.

'괴물' 인터넷도 휩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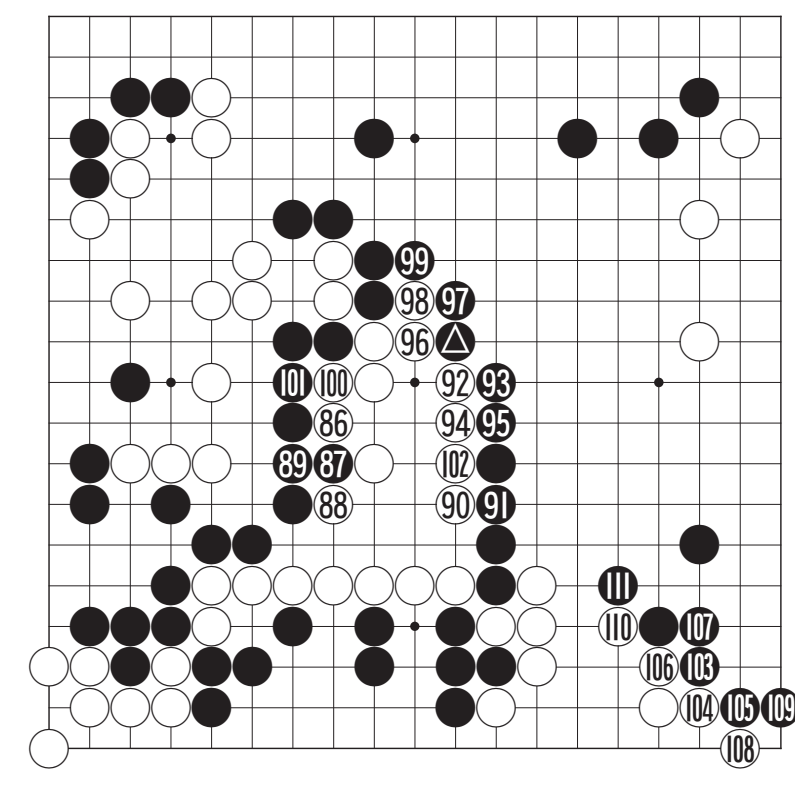
영화 '다세포 소녀'(감독 이재용)에서 열연한 김
옥빈(21)의 섹시 댄스도 무더기 클릭 세례를 받았
다. 김옥빈이 영화에서 '흔들녀'로 변신해 세라 교
복을 입고 춤을 추는 동영상을 비롯, 영화 홍보를
위해 마련한 '제 2의 흔들녀를 찾아라'댄스대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은 보려는 네티즌들로 '다세포
소녀'홈페이지는 한때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김옥빈은 영화 '여고괴담 4'에서 첫 주연으로 데
뷔했고, 현재 MBC 수목드라마 '오버 더 레인보우'
에 가수마상연의 주인공 정희수 역으로 출연 중이
며 오는 10일 개봉 예정인 영화 '다세포소녀'에 출
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 아프리카 소말리아 인근 공해상에서
해적에게 납치됐던 원양어선 제628호 동원호 선
원들이 지난달 30일 밤 피랍 117일 만에 무사히
석방됐다는 소식이 관심을 모았다.
동원수산 소속 원양어선 동원호는 지난 4월4일
납치됐다가 80만 달러를 지급한 뒤 극적으로 풀려

났다.
최근 가슴 성형 논란에 휩싸인 댄스그룹 '샵'의
전 멤버 가수 이지혜의 가슴 공개 시연회도 인기
검색어에 포함됐다.
이지혜는 최근 바키니 수영복 3벌을 갈아 입으
며 몸매를 드러내는 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자연
가슴임을 밝혔다.
이의 월드 그랑프리 K-1 2006 샷포로 대회에서
아케보노를 KO로 쓰러뜨리며 승리한 최홍만과
일본에서 활동중인 만 18세 소녀가수 윤하 등도
인기 검색어에 포함됐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주간 급상승 검색어 (네트닷컴 제공)
1위 괴물 6위 김주희
2위 여름휴가 7위 동원호피랍
3위 김옥빈섹시댄스 8위 이지혜
4위 최홍만동영상 9위 오버더레인보우
5위 8월축제 10위 윤하



영화 '다세포소녀'에서 가난한 소녀역을 맡아 열
연한 배우 김옥빈.



제15회 光日盃 3회전 제6보(86~111)

흑 ●로 막힌 것이 대마 사활을 떠나
백○로서는 빼어난 일격이며 흑으로
서는 기본종은 봉쇄였다.
이쯤되면 가둬서나 형세가 불리한
백의 입장에서 두고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그러나 한판 한판이 단체전의 성
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
지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김 5단은 백 86부터 대마를 살리기
위해 저절할 사투를 벌이기 시작하
다. 백 90,92,94 등은 보통 때라면 상
상하기 힘든 대수수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라도 목숨은 건져놓고
보아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비상사국
이다.
결국 외곽을 철벽으로 만들어 주
면서 102까지 눈물겨게 사는데는 성
공했으나 이렇게 싸지를 퍼서는 이
미 승패는 결정됐다고 보아야 한다.
정장호 5단은 백을 압박해 샅샅이
하빈 백 대마로 갈 길을 돌린다. 111
까지는 필연적인 수순인데 백 대마
의 생사는 어떻게 될까.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세돌, 물가정보 우승
이세돌 9단이 3일 바둑TV 스튜디오
에서 열린 제2기 한국물가정보 프로
기전 결승 3번기 제2국에서 최원용 4단
에게 177수 끝에 흑 불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세돌 9단은 이날 대국에서 흑을 쥐
고 초반부터 대범한 행마를 선보이며 시
중 흐름을 압도, 손쉽게 승리를 거뒀다.
이 9단은 올해 맥스커피배 입선최강
전 우승을 차지했지만, 국내 본격 기전
에서는 지난 2002년 LG정유배 이후 5
년 만에 정상을 밟았다.
이 대회 우승으로 이 9단의 타이틀
획득 기록은 세계대회 6회 우승을 포함
해 통산 16개로 늘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704>

May I take a message?
전할 말씀 계십니까?
A: Hello? Can I speak to Mr. Smith?
B: I'm sorry, but he's out now. May I take a message?
A: Yes. This is John Brown. I'd like to meet him next Monday
morning around 10 o'clock.
A: Let me check his schedule... Yes, I think he can see you.
But could you call again around five to make sure?
A: 여보세요, 스미스 선생님하고 통화하고 싶은데요?
B: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분은 지금 안계십니다. 전할 말씀 계
십니까?
A: 네, 전 댁 브라운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경
그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B: 그 분 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 분은 선생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5시 경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실
래요? 확인할게요.
He's out now. = He's not in.
May I take a message?의 반대 표현
= May I leave a message?(전할 말을 남기겠습니다)

오하이오 니혼고 <704>

英語(えいご)ではそうは言わないそうですよ
영어로는 그렇게는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A: 顧客(こきゃく)から來(く)る苦情(くじょう)處理(しゅり)を
'クレーム處理'って言うそうですね。
B: 日本ではそうですね。でも、英語(えいご)ではそうは言わ
ないそうですよ。
A:じゃ、どう言うんですか。
B: コンプレイントというそうです。それから、日本では'顧客
(こきゃく)'という言葉(ことば)よりも'消費者(しょうひし
ゃ)'という言葉(ことば)をよく使(つか)いますよ。
A: 고객에게서 오는 불만처리를 '클레임처리'라고 한다고 해요.
B: 일본에서는 그렇군요. 하지만 영어로는 그렇게는 말하지 않
는다고 합니다.
A: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B: 컴플레인트(Complaint)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
는 '고객(顧客)'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소비자(消費者)'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써요.
苦情(くじょう) : 불평 불만
處理(しゅり) : 처리

니하오 쑹구위 <422>

請幫我把衣服燙一下吧
이 옷 다림질 좀 부탁드립니다
A: 請幫我把衣服燙一下吧。
Qing bang wo de yi fu tao yi xia ba.
(청 방 워 드 의 복 토 아 쑹 바 이 바)
B: 好。
Ha. (하오!)
A: 什麼時候能弄好呀?
Shi zhen shi hou neng nang hao ya?
(시 쑹 쑹 시 후 난 응 난 호 야)
B: 沒問題。
Mei wen ti.
(메이 웨 닐 티)
A: 이 옷 다림질 좀 부탁드립니다.
B: 네.
A: 언제 다 되나요?
B: 문제 없습니다.
燙(tao): 다림질하다, 편다, 파다
弄(nong): 하다, 처리하다, 구경하다, 놀다
沒(mei): 없다

한자 이야기 <322>

完璧(완벽)
완전할 완, 옥 벽
완벽(完璧)은 '보석의 일종인 옥(璧)을 완전하게 하다'는 뜻
이다. 현재는 결점이 없는 것, 완전무결(完全無缺)하여 흠 잡을
곳이 없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전국시대에 조나라 혜문왕이 화씨의 벽(和氏之璧)으로 불리
는 옥을 손에 넣고 나라의 보물로 삼았다. 이 소문을 들은 진나
라 소양왕이 성(城) 오십 개와 바꿀 것을 제의 하였으나, 실상
은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감재로 뺏으려는 것이었다.
조나라 왕이 이도저도 못하고 고민에 빠지자, 인상여가 진나
라에 옥을 가지고 오자신으로 갔다. 소양왕은 예상대로 옥을 받고
도 약속을 이행할 기미가 없었다. 인상여는 곧 이 옥에는 유감
스럽게 약간 흠이 있으니 가르쳐 드리겠다고 하여 견내림자마
자 즉시 기둥으로 둘러나와 왕을 노려보며 꾸짖었다. "만일 약
속을 이행하지 않고 옥을 억지로 뺏는다면, 이 옥을 기둥에 박
아 부수고 저도 이 기둥에 머리를 박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날 밤 종자들에게 옥을 가지고 조나라로 도망가게 하고 자신은
죽음을 각오하고 남았으나, 그 당시에 감복한 소양왕이 예를 갖
추어 그를 돌려보냈다. 여기서 화씨의 벽을 온전하게 가지고 들
어왔다는 고사에서 '완벽'이라는 성어가 생겼다. 최대한의 노력
과 지혜만이 완벽을 달성 할 수 있다.